

DER SPIEGE & KANTINE

The SPIEGEL Group, whose stable includes Germany's most important news magazine Der SPIEGEL, moved into its new publishing house in Hamburg's HafenCity development. The building distinguishes itself through its exposed position on the water and its modern architecture, expressed in the vertical interior space of the 14-storey atrium. Specially, The floor plan of the canteen that defines a large, polygonal space whose strong horizontal emphasis is further highlighted by the uninterrupted row of windows on two sides. Because the space had to be flexible, it was soon clear that the ceiling design would be the distinguishing moment of the canteen. Reflecting both this fact and the harbor location, the designer developed a matt shimmering ceiling which reflects light in much the same manner as water. It is formed of 4,230 circles made of micro-perforated satin-polished aluminium, laminated onto noise-absorbing supporting material and set at slight angles to each other. This means that the canteen's natural light ambience reacts to its surroundings. A shoal of bright, hanging Plexiglas rods creates glare-free illumination and an intimate setting.

독일의 가장 중요한 뉴스 잡지사 더 슈피겔을 소유하고 있는 슈피겔 그룹이 함부르크의 하펜시티 개발지구에 있는 새로운 출판사옥으로 이전했다. 건물은 내부에 14층의 수직적 아트리움을 가진 현대적인 건축물로, 수로 위에 자리 잡고 있어 매우 독특하다. 특히, 디자인을 의뢰받은 직원식당의 바닥평면은 넓은 다각형의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양쪽 측면의 연속적인 창들의 배열로 공간에 두드러진 수평성이 더욱 강조된다. 가변적인 공간이 요구되는 직원식당은 천장이 디자인의 특별한 요소로, 항구라는 건물의 지역적 위치가 반영되어 물과 같이 빛을 반사하는 희미한 무광 천장이 개발됐다. 천장은 고운 광택과 윤이 나는 알루미늄으로 구성된 4,230개의 원형의 판들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것들은 흡음재 위에 적충되고 서로 다른 각도로 조금씩 틀어지게 배치됐다. 큰 접시 모양의 조명기구에는 강렬한 색상을 사용하여 공간을 구역별로 구분해주며, 날씨가 흐린 날에도 조명기구의 색이 공간을 활기 있게 만들어준다. 테이블 바로 위에 매달린 흐릿한 램프들은 빛이 무한히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수없이 매달려 있는 밝은 플렉시 유리 막대들은 눈부심 없는 조도와 친밀감 있는 모습을 연출한다. www.ligroup.org









